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1076@kiwoom.com



미 증시, 대형 기술주 및 반도체주 부진 등으로 하락 마감

미국 증시 리뷰

31일(목) 미국 증시는 PCE 물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의 재료를 소화한 가운데 빅테크 AI 수익성 우려 불거지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M7 종목 중심으로 하락한 결과 3대 지수는 하락 마감(다우 -0.90%, S&P500 -1.86%, 나스닥 -2.76%)

미 상무부에서 발표한 9월 PCE 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2.1% 상승하며 전월 조정치(2.3%)를 하회,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와 부합.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9월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하며 시장예상치와 부합했지만, 전월치(0.2%)에 비교하면 상승 속도는 가팔라짐, 전년비 기준으로도 2.7% 상승하며 시장예상치(2.6%)를 상회.

미 노동부에서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10월 20일~26일)는 계절 조정 기준 21.6만 명을 기록하며 직전주(22.8만 명) 대비 하락, 금번 수치는 지난 5월 이후 최저치 수준. 또한,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직전 수치 대비 2.6만 명 하락한 186.2만 명 기록.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 허리케인 피해로 인해 급등한 이후 재차 둔화하는 모습.

유로존 10월 CPI 예비치는 전년대비 2.0% 상승하며 9월(1.7%) 수치 대비 상승, 전월비로는 0.3% 상승하며 전월(-0.1%) 대비 플러스(+)로 전환. 에너지 및 식료품 그리고 담배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10월 근원 CPI 예비치는 전년대비 2.7% 상승하며 전월치와 동일한 수준.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10월 CPI 구성 항목 중 서비스 부문이 3.9%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견인했으며, 그 외에 알코올, 담배, 비연료 산업재 등이 상승했음.

주요 종목별 등락률을 살펴보면, 엔비디아(-4.72%), 애플(-1.82%), 메타(-4.09%), 테슬라(-2.99%), 마이크로소프트(-6.05%), 아마존(-3.28%) 알파벳(-1.92%)이 하락하며 M7 종목 전체 하락.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틸리티(+1.0%), 에너지(+0.7%)는 상승한 반면 IT(-3.6%)가 급락하며 전체 지수 하락을 주도.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 발표된 미국 9월 PCE 가격지수는 전년대비 2.1%(전월비 0.2%)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 다만,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PCE 가격 지수는 시장예상치(2.6%)를 상회한 2.7%를 기록하며 끈적한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완전히 털어내지는 못했던 결과.

여기에 주간 실업수당 보험 청구건수도 21.6만 건을 기록하며 전주치(22.8만 건)와 시장예상치(22.9만 건)를 하회. 견조한 소비지출 및 미국 고용시장 안정 기대감이 부각된 결과 장중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3% 초중반선까지 상승했었음. 다만, 주식시장 하락세 속 안전 심리 부각되고, 미 대선을 앞두고 일부 관망세가 짙어진 결과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3%선 위아래에서 등락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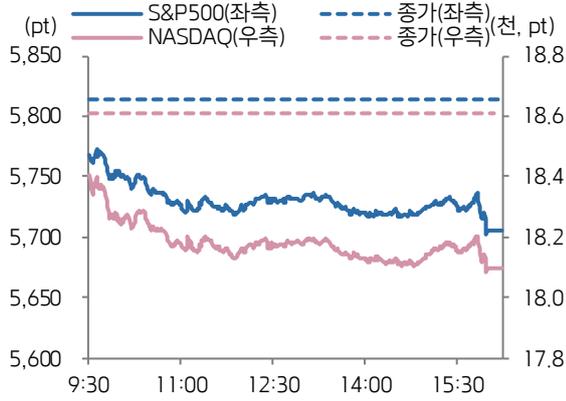
다만, 이 날 미 증시의 하락을 일으킨 주된 원인은 매크로보다는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 확인한 막대한 AI 투자 확대와 이로 인한 수익성 우려였음. 먼저, 전일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닝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에 못미친 향후 매출 가이드선과 시에 대한 막대한 투자지출 지속으로 인한 수익성 우려가 반영된 영향으로 급락. 메타도 양호한 실적에도 예상치 대비 부진했던 일일 활성 사용자수와 시향 막대한 자본지출 확대가 수익성 우려를 불러일으킴.

여기에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슈퍼마이크로컴퓨터가 전일에 이어 급락함에 따라 AI 관련 협력업체인 엔비디아의 낙폭이 확대된 점도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중. 최근 미국 증시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막대한 AI 투자 지출의 당위성을 확보할만한 수익성 혹은 산업 확장에 대해 투자자들이 확신을 얻지 못한 결과 빅테크 및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초래. 여기에 차주 미 대선과 11월 FOMC를 앞두고 변동성 확대를 대비해 일부 현금 비중을 확보해둔 움직임으로 판단. 결국, 오늘 저녁 발표될 미국 고용보고서를 시작으로, 다음주 예정된 미 대선, FOMC 등을 거치며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

전일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컨퍼런스콜에서 HBM 로드맵 언급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중심의 외인 매도세 이어지며 코스피는 부진했지만,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중소형주가 상승세를 보인 결과 양 지수는 혼조 마감 (코스피-1.45%, 코스닥 +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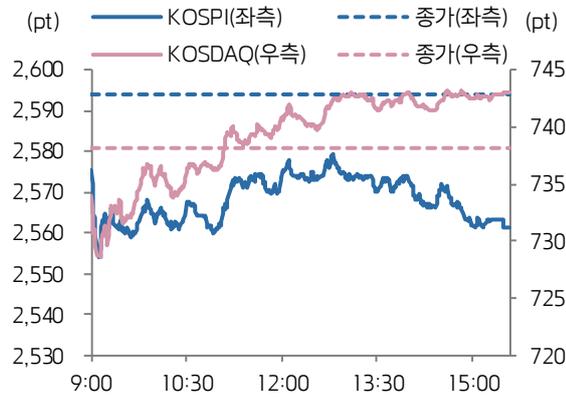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4% 하락하는 등 미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 및 반도체주의 하락을 반영하여 하락 출발할 것으로 전망. 다만, 장 마감후 어닝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며 시간외 7%대 급등 중인 인텔과 더불어 애플, 아마존 실적 결과 그리고 오전 중 발표될 국내 수출 결과에 영향을 받으며 IT 및 수출주 중심으로 차별화 장세 나타날 전망.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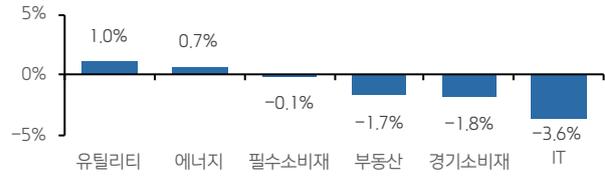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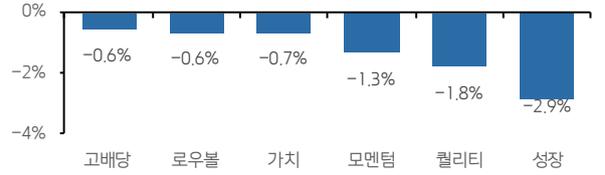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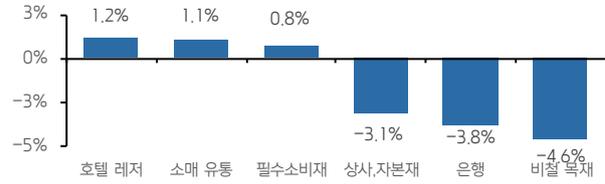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225.91	-1.82%	+17.78%	GM	50.76	-2.33%	+42.46%
마이크로소프트	406.35	-6.05%	+8.65%	일라이릴리	829.74	-2.02%	+43.03%
알파벳	171.11	-1.92%	+22.8%	월마트	81.95	+0.69%	+57.46%
메타	567.58	-4.09%	+60.83%	JP모건	221.92	-1.11%	+33.58%
아마존	186.40	-3.28%	+22.68%	엑손모빌	116.78	+0.08%	+19.8%
테슬라	249.85	-2.99%	+0.55%	세브론	148.82	+0.52%	+3.02%
엔비디아	132.76	-4.72%	+168.14%	제너럴일렉트릭	81.95	+0.7%	+57.5%
브로드컴	169.77	-3.89%	+53.73%	캐터필러	376.20	-0.8%	+29.28%
AMD	144.07	-3.05%	-2.27%	보잉	149.31	-3.23%	-42.72%
마이크론	99.65	-4.26%	+17.11%	넥스트에라	79.25	+0.2%	+33.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556.15	-1.45%	-3.73%	USD/KRW	1,377.00	-0.2%	+6.91%	
코스피200	339.32	-1.65%	-5.22%	달러 지수	103.90	-0.09%	+2.54%	
코스닥	743.06	+0.66%	-14.25%	EUR/USD	1.09	+0.26%	-1.4%	
코스닥150	1,273.29	+1.11%	-8.62%	USD/CNH	7.12	-0.05%	-0.06%	
S&P500	5,705.45	-1.86%	+19.62%	USD/JPY	152.03	-0.91%	+7.79%	
NASDAQ	18,095.15	-2.76%	+20.54%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1,763.46	-0.9%	+10.81%	국고채 3년	2.930	-0.5bp	-21.5bp	
VIX	23.16	+13.81%	+86.02%	국고채 10년	3.095	-0.7bp	-8bp	
러셀2000	2,196.65	-1.63%	+8.37%	미국 국채 2년	4.170	-1.2bp	-8bp	
필라. 반도체	4,946.75	-4.01%	+18.47%	미국 국채 10년	4.284	-1.6bp	+40.5bp	
다우 운송	16,252.15	-0.44%	+2.22%	미국 국채 30년	4.475	-2.9bp	+44.7bp	
상해종합	3,279.82	+0.42%	+10.25%	독일 국채 10년	2.390	+0.2bp	+36.6bp	
항생 H	7,264.11	-0.31%	+25.93%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9,389.06	-0.69%	+9.9%	WTI	69.26	+0.95%	-1.48%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3.16	+0.84%	-5.04%
Eurostoxx50	4,827.63	-1.19%	+6.77%	금	2,749.30	-1.84%	+27.28%	
MSCI 전세계 지수	844.94	-0.37%	+16.22%	은	32.80	-3.75%	+36.16%	
MSCI DM 지수	3,706.29	-0.31%	+16.95%	구리	434.00	-0.26%	+11.55%	
MSCI EM 지수	1,126.51	-0.88%	+10.04%	BDI	1,395.00	-0.5%	-33.38%	
MSCI 한국 ETF	59.91	-1.46%	-8.58%	옥수수	411.25	-0.06%	-18.32%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72.00	-0.22%	-14.5%
비트코인	69,937.51	-3.98%	+64.53%	대두	996.50	+0.53%	-20.45%	
이더리움	2,517.78	-6.01%	+10.32%	커피	245.90	-1.48%	+30.5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0월 31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